

보일러 품질비교평가, 변별력 확보되나 ‘온수출탕시험’ 신설 · 기존 평가기준 강화

가스보일러 품질비교평가 기준이 보다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그러나 평가대상과 평가 별점(☆)이 소비자의 변별력 확보에 올바른 전달방법 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검사실은 지난 14일 린나이 코리아 등 6대 가정용 가스보일러 제조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스보일러 품질비교평가 기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진준 시험검사실장은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인 자료제공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제조사에겐 우수한 품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질비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전자제어, NOx시험 등을 추가했으나 올해는 보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온도조절의 정밀도, 온수출탕시험 등을 추가하고 일부 평가항목은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가스보일러의 품질비교평가는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조사간 선의의 품질경쟁을 유도해 우수한 제품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에 있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가스안전공사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험방법과 최근 법 개정이 이뤄지고 EN규격 부합화에 맞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제시된 품질비교평가 기준(안)은 다음주 중 산자부,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진행될 품질비교평가 기준은 지난해 진행된 품질비교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험항목이 추가되고 기존 평가기준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신설된 항목은 ‘온수출탕시험’이다. 이는 주택건설전문시방서에 따른 것으로 온수온도 최대값과

최소값의 온도차에 따라 온도편차가 1℃ 이내이며 별점 4개, 2℃ 이내 3개, 3℃이내 별점 2개, 3℃ 초과 별점 1개로 평가된다.

평가기준이 강화된 항목도 있다. 성능평가에 있어 기밀구성부의 기밀 항목이 지난해 적·부 판정에서 별점으로 변경돼 보다 세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난방출력 표시정확도’와 ‘온수공급능력 표시정확도’ 항목은 지난해 별점 4개 등급이 ‘표시치의 98% 이상’에서 ‘표시치의 100% 이상인 것’으로 기준이 변경, 강화됐다. 또 ‘가동시의 소음시험(연속시험)’은 별점 4개 항목이 지난해 ‘50dB 이하인 것’에서 올해는 ‘45dB 이하인 것’으로 강화됐으며 대기전력 역시 별점 4개는 ‘3W 이하’ 그대로이지만 △별점 3개는 ‘3W 초과 6W 이하’ △별점 2개 ‘6W 초과 10W 이하’ △별점 1개 ‘10W 초과’로 변경됐다. 지난해 대기전력 평가기준은 15W 초과가 별점 1개였다.

올해 평가대상 사양은 출력 18.6kW, 1만 6,000kcal/h, 사용가스는 도시가스, 난방순환방식은 대기개방식, 급배기방식은 밀폐형 강제급배기식(FP) 등으로 2006년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로 선정됐다.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각 제조사별 모델을 구입해 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성시험만 남은 상태로 최종 평가발표는 오는 12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의 품질비교평가 기준(안) 발표에 이어 관련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았다. 먼저 평가대상 사양에 있어 1만6,000kcal/h보다 최근 제품출하가 늘어나고 있는 2만, 2만5,000kcal/h이나 콘덴싱보일러 등도 평가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과 별점으로 표시하다보니 비교평가의 의도를 흐릴 수 있는 만큼 ‘숫자’로 표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